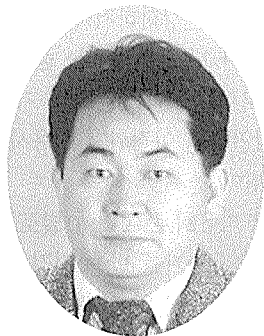


카오스냐 아니면 코스모스냐



權 寧 高

〈한국경제신문 산업1부기자〉

가 격자유화의 원년인 올해 국내 정유업계 앞에 놓인 길은 이 두 가지다.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대기업까지 도산하는 혼돈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만큼 시장경제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냐의 두 갈래 전혀 다른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그 동안 속으로 꿈아왔던 환부가 한꺼번에 터져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는 국내 정유사들이 매출액에 걸맞는 이익도 올리는 정유호황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로는 아무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태로는 카오스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국내 정유업계가 자유화에 걸맞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태로는
카오스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유가 자유화가 시작된지 한달이 되는 지금까지도 정유사들이 체질과 영업방식의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제는 원가경쟁으로 나가야 하는데 원가경쟁에 돌입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주유소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면에서는 개선된 흔적이 적다. 가격정책만 해도 그렇다. 1월의 유가는 자유화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각사마다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선발사들이 비교적 자신있게 가격을 책정한 반면, 후발사들은 「개성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가격은 수렴하게 됐고,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차별화의 가격 자유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거나 품질을 높여 다소 비싼 가격을 매기는 고가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품질 기준에만 맞는 보통의 제품으로 싼 가격에 팔겠다는 가격파괴업자도 나타날 기미가 없다. 자유화가 인상만으로 치달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정유사들은 자유화 시대의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자유화로 여건이 별로 좋아진 것도 없다. 정유업체가 알아서 값을 매기고 소비자의 평가를 받는 진정한 자유화가 아니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 기존의 「시어머니」인 통상산업부 뿐만 아니라 물가당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해서 기름값에 신경을 쓰는 곳은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경기 내리막에 지표관리에 신경을 쓰는 물가당국은 정유업계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유화 좋다. 많이 올리지만 해봐라」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원가계산과 그에 바탕한 영업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구조에선 상당기간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적자는 쌓여만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의 고에너지정책도 카오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름값을 비싸게 매겨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다는 傳家의 寶刀를 정부가 빼든 지금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여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질유에 지금보다 몇배의 세금을 물릴 때 정유사가 또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

카오스의 가능성은 또 있다. 이미 우리에게 앞서 자유화를 실시한 일본과 선진국들의 예가 그렇다.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나은 그들이 최근 대카오스를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는 설명이다. 일본을 예로 들면 지난해 초 특석법 폐지 이후 석유류 수입이 자유화되자 판매경쟁이 치열해져 최악의 경영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유화가 정유업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이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유화가 혼돈 요인만을 갖고 있는건 물론 아니다. 가격을 포함한 자유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지향하는 기본 원리가 아닌가. 그런만큼 노력하

정제비와 원유도입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장
관리측면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여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에 따라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낙관적인 전문가들은 자유화를 계기로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적인 메이저 에너지사로서 도약할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어려운 여건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안방경쟁」임을 고려할 때 업계가 룰과 페어 플레이 정신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코스모스의 길을 갈 가능성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우선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격결정권이 업체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전혀 손을 쓸 형편이 못됐던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동안에도 일부 업체들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하느냐」는 불만을 토하곤 했었다.

자유화로 시장환경과 확실한 논리만 있으면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제비와 원유도입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장 관리측면에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여 원가경쟁력을 높인다면 경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실 정부의 각종 규제조항은 온실역할을 해온 것도 많았지만, 정유업계의 목을 틀어 죄는 조항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또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유화에 따라 정유업계는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의 계기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해 좀 더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미지의 제고효과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석유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전국에 「자연입간판」인 주유소들이 수천개씩 있는 만큼 그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일부 정유사를 빼고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유화를 마지막까지 반대했을 정도로 자유화는 국내 석유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업계의 준비는 부족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이 업계 자체에 원인이 있었건 아니면 가격 현실화등 정유사의 경쟁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었건 이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환경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차원에서 마련한 보완조치인 가격사전보고제도 올 7월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 남은 몇 달간에라도 전면 자유화에 대비해 경쟁체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올해 전개될 상황이 카오스이든 코스모스이든 냉정히 따져보면 정유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란 점이다. 정유업종의 카오스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업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코스모스 속에서도 비틀거리는 기업은 생겨날 수 있다. 각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업계 전체로 보아 평화의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화일 지 모른다. ♣

자유화에 따라
정유업계는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의
계기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